200자 안내

행복한 미치광이

오영민 지음

「6학년 0반 아이들」 등의 동화로 잘 알려진 동화작가의 산문집. 미주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과 「낚시춘추」에 실렸던 에세이를 모아 실었는데, 특히 2장에 실린 낚시에 얽힌 에피소드와 낚시꾼들이 벌이는 헤프닝에 관한 글은 재미와 의미를 함께 전하는 수필로 보인다.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글은 한국현대사의 어려움에 찌든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아이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작가의 숨결이 배어 있다.

무수막 / A5신 / 288면 / 4500원

방황하는 청춘

알렝 푸르니에 지음 / 정성호 옮김

1913년 「N.R.F」지에 4회로 나뉘어 게재되었던 작가의 자전적 소설. 1900년대를 배경으로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전학온 몬느는 모험심이 강하고 조숙한 학생으로 어느날 길을 잃고 한 저택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게 줄거리. 사랑의 열병을 앓는 소년의 성장기를 다룬 이 작품은 짧은 일생을 마친 작가의 대표작.

장원 / A5신 / 262면 / 4200원

세상을 풍요롭게 사는 지혜

정혜인 엮음

동양의 고전에서 뽑은 우화를 모은 책. 우리 삶의 여러 모습을 빗댄 짧지만 뜻깊은 우화를 통해 생활의 작은 철학과 진리를 일깨워주는데,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바라는 하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로 크게 나눠 실었다.

대길 / A5신 / 248면 / 4800원

강좌 중국철학

주계전 지음 / 문재곤 외 옮김

중국 북경사범대학의 중국철학 개론서인 「중국전통철학」의 한국어판. 3부로 이뤄진 이 책의 제1부는 중국철학을 하늘과 기 인간 우주라는 기본범주의 변화과정을 통해 다루고 있으며, 제2부는 공자와 맹자의 유학사상에서 명나라 시대의 양명학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철학사를 유파별로 서술하고 있다. 이어 제3부는 인식론 윤리관 역사관 등의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국철학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예문서원 / A5신 / 416면 / 6800원

YS 대권전쟁

이병도 지음

3당통합 이후부터 대선까지 3년여 동안의 격동의 우리 정치현장을 분석하고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진 책. 정치부 기자로 정당 국회취재를 해온 저자는 대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권 내의 파워게임의 실상과 주요사건들을 일관된 흐름으로 추적, 전개해가는 '현장취재보고서' 형식을 취해 흥미를 북돋는다. 바로 최근까지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의 속사정을 기자의 날카로운 글로 읽는 맛이 각별하다.

범조사 / A5신 / 312면 / 5000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한호림 지음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특유의 위트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글과 삽화로 꾸민 재밌는 영어공부책. 5년간의 이민생활을 통해 터득한 영어습득의 요령이 가득 담긴 이 책은, 어렵지 않은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갖가지 풍물과 역사 신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읽힐 책. 딱딱하고 천편일률적인 학습서와 전혀 다른 편집과 내용이 즐거운 영어익히기로 안내한다.

디자인하우스 / A5신 / 472면 / 8000원

하이재크

루시언 네이함 지음 / 김갑수 옮김

여객기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어 절대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완전무장한 제트전투기에 의해 LA에서 하와이로 향하던 747 점보여객기가 공중 납치되고 범인은 2백여명의 인질과 거액의 금괴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작가는 항공우주과학과 첨단기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여준다. 美 다브르데社의 75년판 「Shadow 81」의 완역본.

남도 / A5신 / 406면 / 5500원

안개는 나를 유혹한다

이옥자 지음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신예수필가의 첫 작품집으로 일상적인 체험을 지성의 사고력으로 수필화한 기량이 신선함과 함께 어우러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작가는 "글을 쓴다는 것은 끝없는 고통과 번민의 길로 이어지는 미로다. 그러나 쓰러져 생명을 잃어가던 나의 십자가는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 힘겨운 발길을 재촉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남사당' '도공은 왜 나를 사랑하나' 등 70편의 작품수록.

범우사 / A5신 / 314면 / 5000원

아픔이 주는 선물

조은일 지음

홍대앞 북카페를 운영하며 수필집 「빵점엄마 백점일기」를 펴내 많은 독자를 확보했던 저자의 두번째 수필집. 제목이 말하듯이 기나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병상을 지키며 겪었던 가슴저민 사연들을 담은 이 책에서 저자는 "나는 이 책을 결코 슬프거나 나약한 의미로 남기고 싶지 않다. 진주는 병든 조개속에서 탄생된다는 교훈을 나의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제3문학사 / A5신 / 282면 / 6000원

겁없이 울어댄 개구리

리처드 세네트 지음 / 김석희 옮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이론가로서 카리스마적 존재였던 지외르지 루카치를 모델로한 소설. 주인공 루카치의 수기와 일기, 경찰조서, 신문기사 따위의 글을 교묘히 짜맞춘 논픽션의 형식으로 이뤄진 이 소설의 작가는, 현재 뉴욕주립대 인간과학연구소장. 저명한 공산주의 비평가로 1919년 헝가리 혁명정권에서는 문화정보부 차관을 지냈고, 소련망명, 대학교수 역임 등 파란 많은 인생을 살다간 루카치의 내면세계를 엿보게 한다.

공동체 / A5신 / 264면 / 4800원

지금 도시는 잠드는가

공애린 지음

86년 「여성동아」를 통해 등단한 여류작가의 여섯번째 작품집으로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주부 방송작가의 이야기. 자궁암수술 도중 에이즈에 감연된 희주는 공중목욕탕도 이용할 수 없고, 작가로서의 생명도 꺼진,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신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기도하는데…….

글사랑 / A5신 / 348면 / 5000원

소설 풍수 (전3권)

김종록 지음

개인사는 물론 국가의 운명을 지리적 요소로 설명하고 그 발전을 도모했던 고유의 풍수사상을 문학작품화한 것. 진태을 정득량 지청오 등 사제지간인 세명의 풍수가 걷는 인생의 도정을 통해 환경문제와 통일문제 등 오늘날의 사회문제를 짚어보고 있는 작품. 주로 역사소설을 발표해온 작가는 실제 풍수였던 외숙과 산을 유난히 즐겼던 부친의 영향을 받은 개인적인 체험이 계기가 돼 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

중앙일보사 / A5신 / 각 284면 내외 / 각 4500원

행복을 찾는 길

이현도 지음

경제인인 저자가 평소 사업의 현장과 사회활동을 하며 느꼈던 '행복'을 주제로 쓴 수필집. 날이 갈수록 점점 정이 메말라가는 현실을 살면서 저자가 가족과 사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찾으려했던 행복에 관한 이야기와 틈나는 대로 써두었던 글, 그리고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을 한데 모아 추린 것. 경제인이면서도 끊임없는 학구열을 자랑해온 저자의 폭넓은 독서량과 인생경험이 배인 글들을 만날 수 있다.

지스 / A5신 / 430면 / 5000원

두뇌골프

미묘시 도오루 지음 / 최영정 옮김

돈도 넉넉치 않고 시간도 모자란 아마추어 골퍼에게 머리를 이용해 실력을 쌓으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골프입문서. 저자는 골프의 기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스윙플레인 즉 스윙 평면의 진수를 가르치는 미국의 골프스쿨 '스윙 더 싱'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이 책을 저술했다. 초보자뿐만 아니라 상급골퍼들의 기량향상에도 기여할 이 책의 역자는 골프 칼럼니스트.

삶과꿈 / A5신 / 260면 / 4200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색스 지음 / 조석현 옮김

이 책은 뇌신경병에 걸려 기이한 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모두 24편의 글로 꾸며져 있는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고 계속 쓰려는 남편과 기억이 25년전에 멈춘 잠수함승무원, 천재 예술가로 변신한 예순살의 자폐증 여성, 90살의 나이로 회춘해 젊은 남자를 그리워하는 노파 등 상상을 초월하는 증상에 시달리는 뇌신경병 환자들의 눈물겨운 임상기록. 신경과 의사로 논픽션작가인 저자의 애정어린 환자돌보기가 감동적이다.

살림터 / A5신 / 346면 / 5000원

불황을 정복하는 성공비결

김형섭 엮음

처세술과 성공학을 묶은 책으로 데일 카네기, 마쓰시다 고노스케 등 동서양의 석학과 경제인들의 성공과 관련된 금쪽같은 인생철학과 삶의 지혜를 담은 글들이 실려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우는 장법과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요령을 일러줄 만하다. '하면 된다의 성공학' '사업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30통의 편지' '성공의 기본전략' '인생의 대야망' 등이 목차.

국제문화출판공사 / A5신 / 254면 / 4200원

이카로스의 노래 (상·하)

유희남 지음

에세이집 「삶의 향기 바람에 날리며」를 펴낸 바 있는 작가의 첫 장편소설. 부동산 사기로 자신의 가정을 파괴시킨 남자의 아내로서 사랑이 제외된 결혼생활을 하는 주인공 윤가희는 죽은줄만 알았던 첫사랑의 남자 최지훈을 만나면서 더욱 혼란에 빠지고 만다. 옛사랑을 다시 찾으려는 최지훈과 가정과 첫남자 사이에서 방황하는 윤가희의 사랑이야기가 대강의 줄거리. 이카로스는 미로에서 탈출한 뒤 비상의 기쁨에 취해 태양 가까이 가려다 녹아서 추락한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삼진기획 / A5신 / 358, 316면 / 각 5000원

계간지

세계의 문학 (93년 봄)

〔기획특집〕 90년대 문학의 성격과 그 반성 ▲90년대 소설의 영화적 관심과 형식문제(도정일) ▲묵시록적 시대의 글쓰기(남진우) ▲작은 자아들의 난중일기(이희중)

〔논문〕 ▲인물 전기의 문학적 가능성(황종연) ▲문학적 유물론과 신역사주의의 문화론 비판(이석호)

〔소설〕 ▲줄(블라지미르 소로킨, 김희숙 옮김) ▲달리가 시계를 녹인 이유(조성기)

〔시〕 황인숙/장옥관/조은/정끝별/박상순/양진건

〔계간비평〕 자연아로서의 삶, 「녹색비평」(현기영)

〔서평〕 박해현/류보선/구모룡/주은우

민음사 / A5신 / 484면 / 7000원

오늘의 문예비평 (92년 겨울, 93년 봄 합본호)

〔특집 1〕 현대문학비평의 흐름 ▲'한국문학' 비평의 정신주의(송희복) ▲'일본문학' 일본 현대비평의 흐름(오경환) ▲'독일문학' 독일문학비평의 사용가치와 기준(이상금) ▲'프랑스문학'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비평의 성과(정수철) ▲'영미문학' 현대영문학 비평의 흐름(정형철)

〔연재번역〕 문학의 생산이론을 위하여 3(P. 마슈레/배영달)

〔지상논쟁〕 이천효의 「과학과 메타과학」 서평에 대한 저자의 반론, '과학에 대한 이해와 오해'(장회익)

〔비평〕 김성한의 지식인 소설(이은자)

〔특집 2〕 근대성 ▲포스터모더니티 : 근대성의 위기인가 종말인가(F. 가이야르/곽동준) ▲모더니즘과 권위(M.H. 레빈슨/조일제)

〔서평〕 김경복/성기각/정영곤/황순재/신진/신명경

〔논문〕 ▲현대드라마의 형식적 특징(조성기) ▲설화구조의 생성론적 분석시론(박영경)

〔부록〕 92년 4/4분기 평론목록

지평 / A5신 / 280면 / 4000원

학술지

러시아 소비에트문학 (제4집)

한국러시아문학회 엮음

〔논문〕 ▲사전에서 파생어의 의미기술(조남신) ▲독립국가연합의 언어상황(허승철, 미할첸코) ▲소련문단 내의 최근 움직임(김규종) ▲L.N. 똘스또이의 심리묘사(박재만) ▲도스또예프스끼의 초기창작과 벨린스끼(심성보) ▲문학비평가 루나차르스끼의 문학관(서상범)

〔오늘의 러시아문학〕 시 : 집시의운명 외 4편(마리나 쯔베따예바/이영의) 소설 : 여신의 죽음(바실리예프/이재필) 아침마다 만나리(바실리 벨로프/이득재)

제3문학사 / A5신 / 282면 / 6000원

녹색평론 (93년 3·4월호)

〔수필〕 ▲이박삼일의 남도기행(박완서) ▲생태학적 상상력(김영무) ▲歲寒圖를 보며(전우익) ▲등명사 쌀뜨물(이현주) ▲恨에서 희망으로/유기농업 실천 농민의 手記(정경식) ▲자연변형의 역사－청산도의 논(조경만)

〔시〕 ▲그늘 외 2편(배문성) ▲뿌리에 대하여 외 1편(임동확) ▲어느 물고기의 최후진술 외 1편(정영상)

〔독자의 편지〕 김성훈교수의 '우리쌀, 누가 지킬 것인가'를 읽고(이균형)

〔번역〕 ▲한국인의 환경의식(패트릭 페리토어) ▲인간은 개미가 아니다(루돌프 바로) ▲애미쉬－살아있는 생태공동체(토마스 포스터) ▲애미쉬 농업의 건강성(웬델 베리) ▲먼저, 마음을 無로 하십시오(오시다 시게토) ▲석유문명 말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쓰치다 아쓰시) ▲영양과 식사의 지혜(로렌스 플라스케트)

녹색평론사 / A5신 / 160면 / 3300원

200자 안내

출·력·서·비·스·센·터/매·킨·토·시·전·문

"말(言)의 길"은 없나
"말(言)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구석기 시대 어린 아이들이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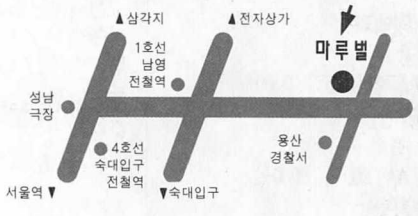
완벽한 서체 지원을 통한
출력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저희 「마루벌」에서는
사보 · 잡지 · 단행본 창간 혹은,
표지 · 본문디자인을 바꾸고자 하시는 업체,
기획 · 편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루벌」 가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 / 표지 · 본문 · 광고 · 카다로그
○ 편집 / 사보 · 잡지 · 단행본 전문
● 출력 / 매킨토시 출력
○ 제판 / 원색 · 단색제판
○ 제작 / 인쇄 · 코팅 · 제본

♠ 방문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